



27일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TV에 방영되고 있는 후보 영상물들. 왼쪽부터 대통령민주당 정동영 후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홍보물.

연합뉴스

대선 D-20

후보 홍보전략 다양각색

유권자의 마음 잡아라

TV·신문 광고·로고송 등 테마별 차별화 전략

17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들 '세일즈' 하기 위한 각각의 홍보전략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鄭 "정동영 광고에는 정동영이 없다?"=28일 일간지에 실린 정동영 후보의 광고는 언뜻 보면 이명박 후보 광고로 착각할 정도이다. 광고 중앙에 이 후보의 얼굴이 크게 실린 가운데 온통 이 후보의 얘기뿐이기 때문이다. TV, 신문 광고에 네거티브, 포지티브 전략을 적절히 병행, '좋은 대통령'과 '나쁜 대통령'의 대립구도를 선명히 한다는 복안이다.

선거를 거리현수막에는 후보의 얼굴이 없다. 한나라당의 상징색인 푸른 바탕에 "실천하는 경제대통령 2번 이명박, 국민여러분 성공하세요"라는 간결한 메시지만 들어있다.

신문과 TV광고는 기본적으로 정책 공약을 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 28일 한 일간지에 게재된 신문광고에는 "쓰잘데 없이 씹박질 그만하고 경제 좀 꼭 살려라"고 말하는 옥쟁이 할머니를 마주보며 찍은 사진과 함께 경제정책 공약을 소개하고 있다.

유세 로고송의 메인 테마곡으로 선정된 '성공송'은 "모두가 성공하세요, 명박이 도와드려요"로 시작한다. 홍보비용도 150억원 가량으로 수위를 달린다.

◇昌 "TV 광고 절치부심"=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눈물 흘리는 노무현' TV 광고에 완패한 이 후보 캠프로서는 무엇보다도 TV 광고 제작에 공을 들였다. 극비리에 제작하느라 첫 편을 보내기 직전까지 캠프 내 팀장들까지 내용을 몰랐을 정도.

현수막과 포스터, 광고, 홍보물 등 홍보물을 관통하는 전체 테마는 '가족행복'과 '안아주세요.' '가족이 행복한 나라, 좋은 대통령'이 포스터와 현수막의 캐치프레이즈이다.

선거호를 활용한 "한 번 생각하면 좋은 대통령(기호 1번), 두 번 생각하면 나쁜 대통령(기호 2번)" 슬로건도 적극 활용기로 했다. 대표적 로고송은 신세대 트로트 가수 장윤정씨의 경쾌한 뽕짝 '어머바' 개사곡과 참작곡 '안아주세요.'

◇李 단순명료, 포지티브...홍보도 '실용주의'=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유세 로고송의 메인 테마곡으로 선정된 '성공송'은 "모두가 성공하세요, 명박이 도와드려요"로 시작한다. 홍보비용도 150억원 가량으로 수위를 달린다.

◇昌 "TV 광고 절치부심"=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눈물 흘리는 노무현' TV 광고에 완패한 이 후보 캠프로서는 무엇보다도 TV 광고 제작에 공을 들였다. 극비리에 제작하느라 첫 편을 보내기 직전까지 캠프 내 팀장들까지 내용을 몰랐을 정도.

27일 밤 첫 전파를 탄 TV 광고 1탄 '알았습니다'에서는 '아버지의 마음

을 알았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소녀가장의 마음을 알았습니다'라는 광고 카피에서 알 수 있듯이 후보가 출마 선언 당시부터 말했던 '국민 속으로'란 모토가 오토이 담겨있다는 설명이다. 4탄까지 나올 TV CF는 이 후보가 추구하는 정책적 기초 위에서 이야기를 연결해 가는 미니시리즈 방식이 될 전망이다.

◇權, 李, 文=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다시 뛰자 대한민국, 부지런한 이인제"를 포스터 슬로건으로 정했다. 로고송은 송대관씨의 '유행가'와 설운도씨의 '사랑의 트루스트' 개사곡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측은 '슬로건인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과 비정규직 문제를 콘셉트로 TV 광고물을 기획하고 있다. 로고송은 박현빈의 '빠라빠'와 '곤드레만드레'를 선택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홍보물은 전체적으로 빨간색과 흰색이 7대3 비율로 배합되었고 물결 무늬가 들어간 경우가 많다. 슬로건은 '대한민국 재창조, 일자리 500만개.' 로고송으로는 중.장년층을 위해 '행복의 나라로'와 트로트인 '잔짜'를 개사해 사용하고 있다.

'나쁜 대통령-좋은 대통령' 원조 논란

신당-한나라 신경전 가열...저작권은 박근혜의 '참 나쁜 대통령'

대통령민주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나쁜 대통령-좋은 대통령' 화두를 놓고 선거전 초반 때 아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신당 정동영 후보의 공식 선거전 시작일인 27일 첫 신문광고 문구는 "1번 생각하면 좋은 대통령이 보입니다. 2번 생각하면 나쁜 대통령이 보입니다."였다. 1번은 정 후보이고, 2번은 이 후보다.

명박·이회창 후보가 가져올 변화는 나쁜 변화이고, 나라를 망치는 변화"라며 "정동영이 좋은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측 김현미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정동영 후보의 슬로건은 '좋은 대통령'이라며 "이명박 후보가 난데없이 '참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나온 정 후보 선거포스터 시안과 가용 홍보물에 '좋은 대통령'이라고

인쇄돼 있는 것을 이 후보가 본 게 아닌가 싶다"며 '원조'를 썼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 측은 '좋은 대통령'은 본인들이 먼저 주창했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를 '나쁜 대통령'으로 몰아세우는 정 후보측에 날을 세웠다.

실제 이 후보는 공식 선거전 시작 전날인 지난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선대위 회의에서 "나는 참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

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후보는 신당의 신문광고와 관련, "좋은 대통령'은 내가 먼저 말한 건데...저작권 침해 아니냐"며 빼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원류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나쁜 대통령-좋은 대통령'의 저작권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있다.

쉽고 짧은 특유의 어법으로 유명한 박 전 대표는 지난 1월9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른바 대통령 4년중임제로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 한 마디가 두고두고 정치권에 회자되며 대선에서까지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

이명박 후보 부인 '명품 시계' 진위 법정간다

"내 시계는 7만원" 소송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의 '고가 명품 시계' 진위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대통령민주당 김현미 대변인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원고는 피고가 주장한 그런 시계를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시 착용한 시계는 국내 상표인 '로만손'사의 시계가 7만원 상당의 시계인데도 피고는 원고가 마치 1천500만원 상당의 고가 명품시계를 소지·착용하고 외국에서 밀수한 것처럼 허위



한나라당이 지난 27일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가 차고 다니는 시계는 신당의 주장처럼 1천500만원대의 '프랑크 물러' 시계가 아니고 국산 '로만손' 시계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오른쪽이 프랑크 물러 시계이며 왼쪽은 로만손 시계.

내용을 발원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대변인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 부인 김윤옥씨가 7월27일 한나라당

경전매 울산 합동연설회에서 차고 있던 시계는 1천500만원 상당의 '프랑크 물러' 상표로 밀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부재자 투표 대상자 6만6,899명

17대 대선 광주·전남지역 부재자 투표 대상자가 6만6천899명으로 확정됐다.

광주시·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지역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25,949명, 전남은 40,950명으로 각각 확정됐다.

전국적으로는 81만755명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3천767만 1천415명의 2.15%에 해당하며 2002년 대선 때 보다는 5만6천721명이 줄어든 것이다.

선관위는 무엇보다 부재자투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군인·경찰의 신고 건수가 16대 대선 때 66만1천175명에

서 56만4천531명으로 9만6천644명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인 신고 역시 7만9천25명에서 7만7천909명으로 1천116명 줄어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신고요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전반기적으로 지난 대선보다 낮아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부재자투표는 다음달 13~14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 구·시·군 선관위에서 설치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 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 북구 시의원 재선거 명함 무단 살포 고발

광주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광주 북구 제3선거구 시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후보의 명함을 무단 살포한 혐의로 A씨 등 4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하고, 후보자 B씨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17일 오후 8시부터 약 5시간동안 광주 북구 용봉동과 오치동 일대 24개 아파트 단지 현관 등에 B후보의 명함 3천 200여장을 무단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